

ISSUE PAPER

2022 Vol. **04**

| 발행인 윤효석

| 발행일 2022. 11. 30.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다문화 청소년, 배제가 아닌 수용과 통합으로

- 01 들어가기
- 02 다문화 청소년 특성
- 03 상담실에서 만난 다문화 청소년
- 04 다문화 청소년, 어떻게 대응할까?



01 들어가기

OO는 한국인 아버지와 OO국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친할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OO이 6살 때 어머니께서 동생을 임신하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친정으로 잠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때 OO도 어머니의 나라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동생이 태어날 즈음에 OO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는 동생이 태어난 뒤 3년 동안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친정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결국 OO이 10살이 되던 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OO은 OO국가에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장 밖에 말하지 못하였고 발음도 서툴렀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OO의 발음과 문장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수업시간에 책을 읽으면 주변 아이들이 OO의 발음을 따라하며 놀렸다. 화가 많이 난 OO는 놀리는 친구를 교실에서 넘어뜨리고 밟고 때렸다. 놀란 선생님이 다가와 말렸지만, OO는 씩씩대며 화를 참기 힘들었고 학교생활도 점차 힘들어졌다. 담임선생님은 OO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게 되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방한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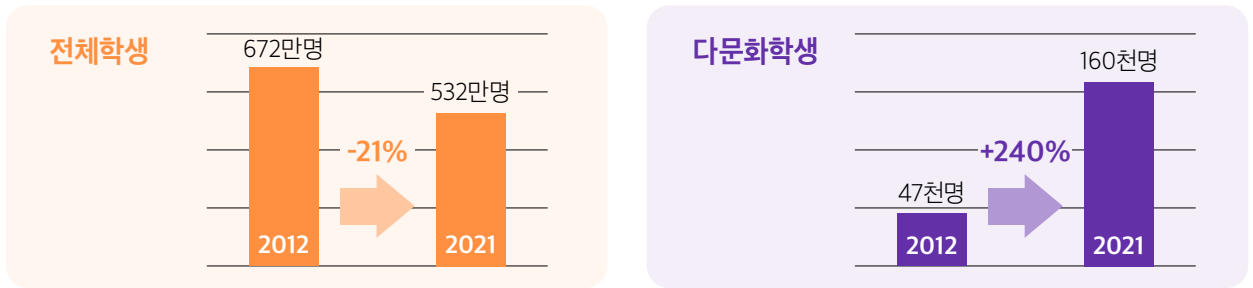
-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부부처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각기 다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 정의)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만24세 이하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의 +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까지 범위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다문화 학생의 입학 및 전학)	중도입국청소년, 재외국민자녀,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포함
사회적 정의 (양계민 외, 2021)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

* 이슈페이퍼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토대로 '9세~24세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내로 이주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국제결혼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 국가 간 이주로 한국사회에 편입하여 문화적 전환을 경험하는 이주청소년)'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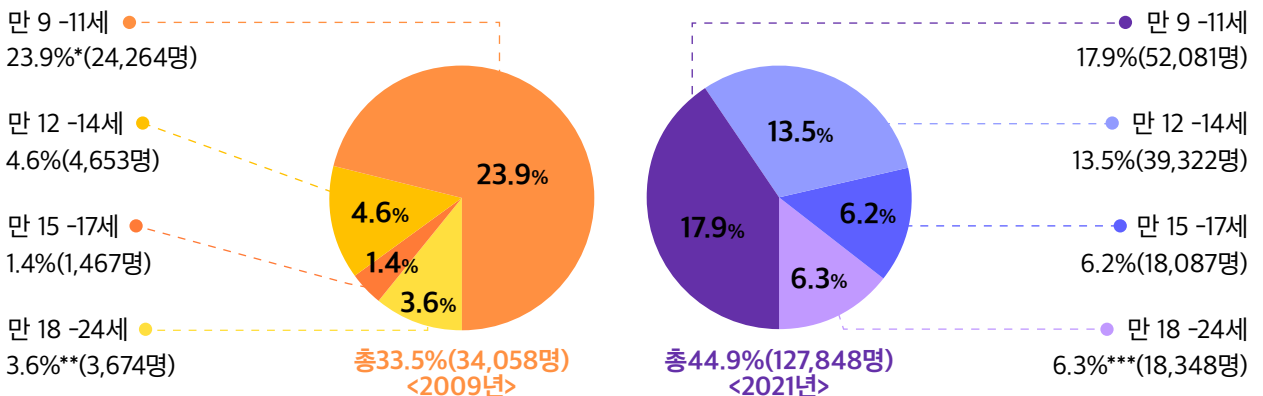
-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2010~2012)이 시행된 이후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2012~2017)을 거쳐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2018~2022)을 실시하고 있다. 제1차와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는 다문화사회 초기 진입단계에 맞춰 한국어 교육과 학교 학습지원 등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사업과 이중언어 교육관련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 다문화인구는 다문화지원법이 제정된 해인 2008년 이후 14만 4천명에서 2021년 38만5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 특히 우리나라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체 출생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출생 비중이 2008년 2.9%에서 2021년 5.5%로, 89.7%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
-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만7세~18세)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학생 수 대비 2016년 1.7%에서 2020년 3%로 늘었다고 밝혔다(김태영, 2022.02.04.)

<표> 전체 학생 및 다문화학생 수 증가 추이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숫자 추이 / 출처 : 김태영(2022.02.04)

<표> 다문화 청소년 비율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김승권 외, 2010),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 재구성
-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9세~24세가 차지하는 비율임 / *2009년 자료는 6-11세 비율임 / **2009년 자료는 만 18세 이상 성인자녀 비율임

-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미취학 및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초점이 맞춰있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상담한 상담자의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지원이 청소년에게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02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청소년 발달과업 뿐 아니라 다문화적인 배경으로 겪게 되는 경험이 중첩되면서, 청소년기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분야별 어려움		심리사회적 어려움
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언어발달 수준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감 및 자존감 저하 • 학습부진 • 높은 우울감 및 불안 • 자살사고 • 학교부적응 • 이탈 및 비행
학업·진로	언어문제로 글쓰기, 독해, 어휘력에 영향 받아 학습 어려움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	또래와의 소극적인 상호작용 태도로 놀림, 차별, 따돌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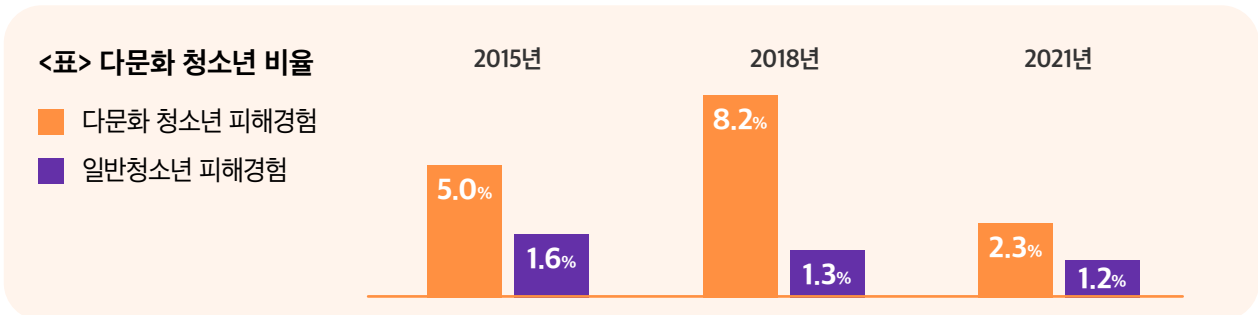
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재구성

○ 정신건강 및 인터넷 과의존 문제

실제 다문화 가정과 한국문화 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비교한(장인순, 2020)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건강 위험 행위인 약물사용 경험이 한국가정 청소년에 비해 3.3배 높았고($p < .001$), 자살시도는 1.2배($p = .014$)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년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토대로 내국인 부모에서 자란 청소년과 이주 배경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우울 경험률은 28.3%, 자살생각 경험률은 17.1%, 또래 청소년의 우울 경험률은 25.1%, 자살생각 경험률은 12%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명옥, 2018).

○ 학교폭력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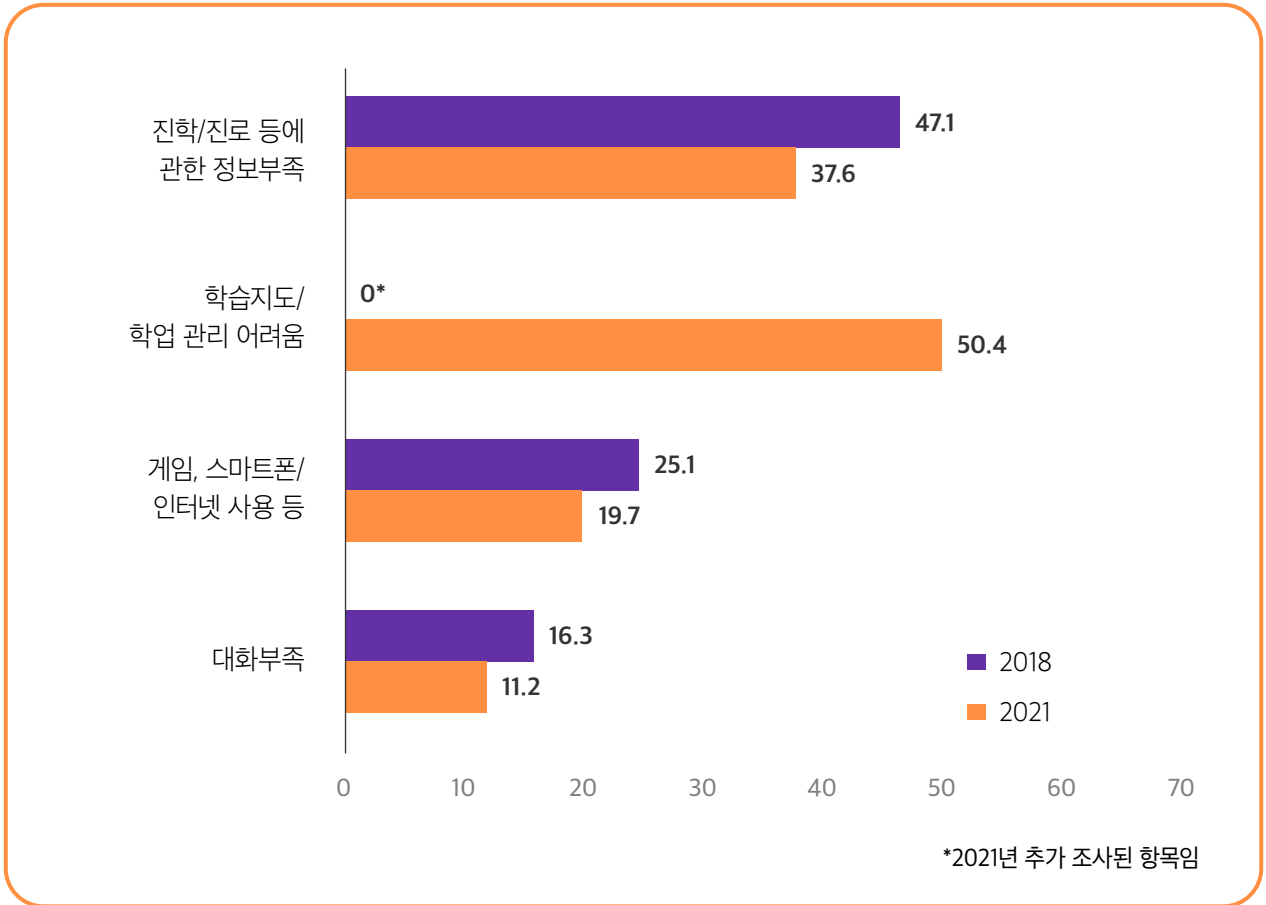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다문화 청소년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고 피해학생 스스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이민술 외, 2021),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8년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코로나로 인한 등교자체가 확연히 줄어든 영향으로 볼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202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다문화가정 보호자가 느끼는 어려움

한편,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6세-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보호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게임·스마트폰·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자녀와의 대화부족 등 이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다.

<표>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의 만6세 이상 자녀 양육 시 어려움(복수응답)



(출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재구성)



03 상담실에서 만난 다문화 청소년

※ 인용된 인터뷰와 202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연구된 [다문화 청소년 개입 연구보고서]의 상담자 인터뷰를 재구성하였다.

❓ 다문화 청소년들은 어떻게 상담실을 찾아왔나?

다문화 청소년 사례발굴경로 중 의뢰되는 기관은 주로 교육청과 학교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검사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상담기관에 연계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부모를 통해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이 상담실로 오게 되는 주요 경로를 학교를 통해서입니다. 학교 교육복지사 그리고 위클래스 교사 그리고 정서행동심층평가, 교사들을 통해 많이 발굴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거나 학교에서 이야기를 듣고 자녀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자를 통해 의뢰가 되기도 해요.”

❓ 주로 어떤 주제로 상담실을 찾나?

다문화 청소년은 대인관계, 가족, 학업·진로, 정신건강(ADHD, 자살·자해, 불안·우울 등 정서문제), 학교 적응(교우 관계 및 따돌림, 학교폭력, 언어의 한계로 또래와 소통이 어려움, 등교거부), 비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주제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실을 찾는다.



“청소년이란 시기가 우울이나 불안 문제도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울·불안 문제로 찾아왔는데 탐색해보니 결혼이주배경의 자녀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많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스마트폰하고 게임만 한다고 해서 부모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자 J



상담자 J

"친구들과 학교 내에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말을 잘 안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거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데 한국말이 익숙해지지 않아 따돌림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이나 공부를 하기 위한 특별지원과 같은 진로와 학업에 관련된 욕구들로 인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나 그 이후에는 심리적 지원들보다는 진로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 별로 주호소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진로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청소년 경우 부모님이 정보를 잘 몰라 혼자 고군분투 하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자 G

❓ 상담이 도움이 되었나?

❖ 상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대안관계에 긍정적 기반 마련



상담자 J

"청소년이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맺은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타인과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친구들과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 부모상담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에 도움



상담자 J

"제가 담당한 청소년은 한국국적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케이스였는데, 먼저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 어머니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개인 상담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상담을 통해 꾸준히 연습했고, 어머니의 변화가 청소년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상담자 A

"러시아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상담을 받으면서 직업 체험까지 연결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러시아권 어머니는 문화권 특성상 '자립해야한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서라' 하는 강한 양육 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은둔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양육태도를 교칭하며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 다문화 청소년의 인종, 관습, 종교, 가치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상담에서 중요하게 작용함



상담자 D

"초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본인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한번은 아프리카 출신의 내담자가 와서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흑인 모델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흑인'이라는 단어에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깊게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문화적인 민감성이 상담자에게 많이 요구되는구나 생각했어요."

❖ 상담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됨



상담자 A

"상담실에서 어머니 상담을 같이하며 내담자에게 용돈을 주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연습했었어요. 용돈을 조금씩 모으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족지연을 하면서 쓰지 않고 돈을 모으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용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아들의 변화가 기뻐던 아버지가 만원의 상금을 더해주면서 긍정적인 보상과 피드백을 받은 내담자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찾았어요. 하나의 사건에서 자신감을 찾은 내담자는 학교수업에도 열의를 보였고, 학급에서 학업성취도 상까지 받으며 자신의 진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통해 가족이 도움 받음



상담자 C

"제가 담당한 사례 중에 한국어소통의 어려움으로 나이보다 3년 낮추어 초등학교 5학년에 편성된 아이가 있었어요. 상담초기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는데, 보드게임과 그림치료 등 상담도구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통역사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또 만성적인 우울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00의 어머니도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상담자와 담임교사의 권유로 지역의 외국어 경연대회를 준비해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 상담자의 변함없는 수용과 지지를 받으며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하고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에도 성공했습니다."

04 다문화 청소년, 어떻게 대응할까?

“다문화 청소년 발달단계에 맞춘 지원과 관심이 필요”

다문화 청소년 발달단계에 맞춘 지원과 사회적 포용력 필요

-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초 다문화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원방안에서는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지원,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교육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탐색, 자기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포용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사회 초기부터 다문화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와 편견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오계택 외, 2007).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도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수용력이 기반 된 사회로의 이행이 더욱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 이중문화를 수용하고 학교와 가정 내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성공적인 경험이 필요

-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 이슈와 맞물려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기이해와 표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다문화 배경의 의미와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또래관계에서 깊이 있는 관계의 경험이 필요하다.
- 이중문화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은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중문화 수용경험은 학교적응, 정신건강,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수경, 2020).

- 가정 내에서도 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에 대화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우울감이 낮고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나아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효진, 2019).

상담, 다문화 청소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는 사회정의 옹호자 및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며, 다문화 상담역량과 더불어 사회정의 상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이를 통해 다문화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개입과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자를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 언어의 한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자 상담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양육자의 역할이나 양육방법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담자는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서 정신건강과 정서적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 교육하는 등 효과적인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 상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과 연계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여 이들을 지지하는 상담자를 위한 매뉴얼을 교육 및 배포할 예정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창구 필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상담복지센터로 다문화 청소년을 의뢰한 외부기관으로는 교육청 및 학교(50.0%), 보호자(21.8%), 다문화관련기관(10.3%), 아동·청소년 유관기관(5.1%), 보호관찰소, 법원, 경찰서 등(5.1), 행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1.3%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던 청소년을 연계한 외부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다문화관련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64.1%).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17.9%, 행정기관 6.4% 등의 순이었다.
- 이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의 특성 상, 보호자, 가족,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심리-정서적 상담지원뿐만 아니라 언어, 진로지원, 사회적응, 취업교육 등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추후 더 많은 다문화 청소년과 가족이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노력이 요구된다.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호진 (2019). 부모 자녀관계와 다문화가족지향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및 한국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4), 597-604.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계택, 이정환, 이규용 (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1), 35-43.
- 이민솔, 문국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1(2), 103-125.
-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 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113-139.
- 장인순 (2020). 다문화 가정과 한국문화 가정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 정신건강 및 건강인식 비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3(2), 115-124.
- 채명옥 (2018).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12), 383-393.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022.11.16. 검색
- 통계청 (2022).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421621 검색
- 통계청 (2022). 202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다문화 청소년 개입 매뉴얼 연구보고서. 부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태영 (2022.02.04.) 어느새 16만명 넘는 다문화 청소년...정부도 첫 지원 방안 마련.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0EU2JU9>



ISSUE PAPER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2 Vol. 04

인 쇄 : 2022년 11월

발 행 : 2022년 11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051)662-3136 / F.(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글로브임팩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